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5  
하박국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하 박 국

## Habakkuk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4b)

וְצַדִּיק בְּאֵמוּנָתוֹ יִחְיֶה :

## 하박국 차례

---

|                               |       |     |
|-------------------------------|-------|-----|
| 하박국 서론 .....                  | 〈10제〉 | 399 |
| 제 1 장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갈대아 족속 ..... | 〈20제〉 | 402 |
| 제 2 장 심판받게 될 갈대아 .....        | 〈20제〉 | 407 |
| 제 3 장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    | 〈22제〉 | 412 |

## 하박국 특별 자료 차례

---

|  |     |
|--|-----|
| 하박국 서론 〈연구 자료〉 선지자 하박국은 누구인가? .....    | 401 |
| 제 1 장 〈화보 자료〉 콤란에서 발견된 「하박국 주해서」 ..... | 406 |
| 제 2 장 〈연구 자료〉 하박국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  | 411 |
| 제 3 장 〈화보 자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광선(光線) ..... | 416 |

# 하박국 서론

##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하박국’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2) 왜냐하면 본서의 서두(序頭)에서 본서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默示)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1).  
(3) 그런데 일부 비평가들(Giesbrecht 등)은 본서 가운데 1:5-11의 내용이 전후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비평가들(Robert Pfeiffer 등)은 3장이 다른 사람의 시를 따온 것이라는 이유로 본서 전체를 하박국 혼자서 기록했다는 주장을 각각 부인하였다.  
(4)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신학자들(Young, Archer, Van Katwyk 등)은 1:5-11의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건(B.C. 605년 갈대아인이 애굽을 물리친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며, 3장과 1,2장의 주제는 같고 또한 1-3장에 사용된 언어들(유사점(1:4,13과 3:13 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본서의 저자가 한 사람임을 주장하였다.  
(5)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 저자 ‘하박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한편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인 하박국의 이름 따라 ‘하박국’ 서(書)로 불렸다.

## 2. ㉡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는 1:6의 바른 해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6이 본서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적 사실인 ‘갈대아’ 사람의 침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갈대아 사람의 침입’을 해석하여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B.C. 330년을 주장하는 자들이며 또 다른 부류는 B.C. 612-605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3) 먼저 B.C. 330년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거는 ‘갈대아 사람의 침입’이라는 말의 ‘갈대아 사람’이란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때는 B.C. 330년경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Alexander) 왕 때이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330년경이라는 것이다.  
(4) 또 다른 부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Young, Archer, Ridderbos 등)이 지지하는데 이들의 논거는 갈대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면 강성해야 하는데 실제 역사에 있어서 ‘갈대아 사람’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때는 그들이 니느웨를 멸망시켰던 B.C. 612년이고, 본서에 나타난 대로 ‘갈대아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입한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입 때인 B.C. 605년이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612-605년이란 주장이다.  
(5)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해 볼 때 B.C. 33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 본문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따를 것이 못 되고 B.C. 612-605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를 B.C. 612-60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가 예언자 하박국에 의해 기록되었던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시대였다.

- (2) 먼저 국외적(國外的)인 위기는 애굽 군대가 B.C.609년대에 유다의 왕을 죽인 후 스스로 패퇴하면서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을 뻗쳐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함으로 조성되었다.
- (3) 또한 국내적(國內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왕(여호야김)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왕하 23:37) 그 위기가 조성되었다.
- (4)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1:1-4).

4. ㉠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서는 다루고 있는 주제와 그 문장 구성에 있어서 다른 구약의 책들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먼저 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날로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묵인하시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다.
- (3) 또한 본서의 문장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제시되며 그 답변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을 설명하라.

- ㉠ (1) '하박국'이란 이름은 '포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하뵤룩)에서 유래된 것이다.
- (2) 한편 교부(敎父)인 제롬(Jerome)은 '하박국'을 '껴안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며, 그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6. ㉠ 본서의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그 심판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범 죄치 않아야 하겠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해야 하겠다(막10:52).

7. ㉠ 본서의 내용이 신약 시대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2:4에 나오는 이신 득의(以信得義), 즉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다.
- (2) 그런데 이 짧은 31절을 바울이 이용하여 신약 성경의 주요한 본문(롬1:17; 갈 3:11; 히 10:38, 39)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에 루터(M. Luther)가 모든 외적인 종교의식에 대항해 믿음의 우월성을 외칠 때 기본 신조로 사용되었다.
- (3) 또한 이 귀절은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단순히 교리(敎理)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신조임을 깨닫게 하며 먹을 음식마저 없을 때에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게 하는 큰 기초가 되었다.
- (4) 이와 같이 본서는 신약 초기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루터(M. Luther)의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8. ㉠ 본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 (1) 하박국서는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첫째 부분은 하박국의 첫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를 참고 계시는 이유를 하박국이 묻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하셨다(1:1-11).

- (3) 둘째 부분은 하박국의 두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악한 갈대아인을 들어 심판하시나고 하박국이 묻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역시 그들의 다섯 가지 죄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대답하셨다(1:12-2:20).
- (4) 마지막 세째 부분은 하박국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계시를 내리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다(3:1-19).

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 1:1
- (2) 하박국의 질문들 / 1:2-2:20
  - ① 첫번째 질문 / 1:2-4
  - ② 첫번째 대답 / 1:5-11
  - ③ 두번째 질문 / 1:12-2:1
  - ④ 두번째 대답 / 2:2-20
- (3) 하박국의 찬미 / 3:1-19
  - 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미 / 3:1-3
  - ②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미 / 3:4-7
  - ③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찬미 / 3:8-16
  - ④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미 / 3:17-19

10.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4).

연구자료

선지자 하박국은 누구인가? 본서 이외에는 선지자 하박국(Habakkuk)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별다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혹자는 본서 3장에 나오는 ‘시기오돗’(3:1), ‘영장’(3:19)과 같은 전문 음악 용어를 근거로 하여 하박국이 레위 자손이었을 뿐 아니라 성전 합창대(참조, 대상 25장)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은 수넵(Shunem) 여인의 아들(왕하 4:8-37)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넵 여인과 하박국 간에는 무려 1세기여의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승은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외경 중 하나인 ‘벨과 뱀’에 선지자 하박국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혀 있을 때 하박국이 음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힌 것은 하박국의 활동 시대보다 무려 70여 년 후의 일이니 이 기록도 믿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박국이 선지자였다는 사실밖에는 알 수 없지만(1:1) 그는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설파(說破)한 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2:4).

# 제 1 장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갈대아 족속

단락구분 1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 2-4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다 / 5-11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을 선포하시다 / 12-17 하나님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한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다

1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독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12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쾌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펴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1. **㉠ 본장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방인 갈대아 민족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선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인 갈대아 민족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커다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다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인을 사용하여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만드신다(잠16:4).
2. **㉠ '경고'(警告)란 무엇을 가리키는가?(1절)**
  - ㉠ (1) '경고'란 히브리어로 <맛샤>인데 '짐'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저자 하박국 자신이 받은 계시를 ‘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통치 제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기 때문이었다.

3. **㉠** 하박국이 이전(以前)에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1)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강포(強暴)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2) 그런데 여기서의 ‘강포’라는 것은 통치 제급이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한 것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마음 아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보다는 주위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민감하게 깨닫고 그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다(눅 10:27).

4. **㉠** ‘간악(姦惡)을 보게 하시며 패역(悖逆)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 없이 방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박국이 생각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B.C. 608-597)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렘 22:3,13-17).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를 지나쳐 버리시지도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으신다(참조, 23:21).

(4)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벌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잠시 간과(看過)하셨음이 분명하다.

5. **㉠** ‘변론과 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는가? (3절)

**㉠** (1)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간에 일어났던 변론과 분쟁을 의미한다.

(2) 그런데 하박국이 같은 민족간에 일어났던 변론과 분쟁을 지적한 것은 그가 민족을 사랑하며 작은 죄도 쉽게 넘기지 않는 온유함과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우리도 하박국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며 작은 죄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아야 하겠다(막 12:31; 눅 7:5).

6. **㉠**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1) 이 말은 그 당시의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2)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공의가 끊긴 이유는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재판장들이 법을 왜곡하여 집행하므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인들(제사장들)마저도 심한 외식에 빠져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사회의 법과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7. **㉠** ‘놀랍고 또 놀랄지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탐메후>인데 놀라움의 최고 절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이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크게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8. **㉠**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고 또 놀랄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행하실 ‘한 일’은 이전에 없었던 크고 무서운 일을 가리킨다.

(3)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없었던 크고 무서운 일로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셔서 인간의 죄악됨을 깨우치신다.

9. ㉠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6절)

㉠ (1) 갈대아 사람은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사납고 성급(性急)한 백성이다.

(2) 이것은 갈대아 사람이 점점 강성해져서 남부 바벨론의 갈대아 지방의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실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 게셋(창 22:22)의 후손들인 갈대아인들은 나보폴라살(Nabopolassar) 왕 때(B.C.625-605) 앗수르를 함락시키고 대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10. ㉠ ‘심판과 위령(威令)이 자기로 말미암으며’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1) 갈대아 사람은 사람을 재판하는 법이나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이 자신들에게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착각했는데 이 말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2) 그들은 이와 같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많은 열방들과 이스라엘을 포악하고 혹독하게 지배하고 다스렸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만 믿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참조, 삼상 4:7).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을 우리가 당하도록 허용하시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렘 30:24).

11. ㉠ ‘원방(遠方)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1)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2)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3) 사실 악인들은 자신의 죄악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심판과는 동떨어진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곧 사용될 기세로 그 주위에 머무르고 있다.

12. ㉠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한다.

(2)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중심을 둔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때(B.C. 597) 20여 년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었다(왕하 25:1-8).

13. ㉠ ‘열왕을 떨시하며 방백을 치소(嗤笑)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0절)

㉠ (1) 이 말은 갈대아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그들은 독단적인 거만함, 조급한 야만인의 심성, 자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자들의 입을 말한다.

(3) 또한 그들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데 있어서 맹렬하고도 신속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성(城)도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4) 세상 사람들의 시야로는 바로 위와 같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참조, 롬 13:1-7).

14. ㉠ ‘바람같이 급히 몰아’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1) ‘바람같이 급히 몰아’란 말은 갈대아인이 바람이 휩쓸듯이 빠르게 열방과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갈대아인들은 이렇게 쉽고도 빠르게 타국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극도로 완악해져 있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계획이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갈 때 그 일로 인해 교만에 빠지기 쉽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하겠다(잠 3:34).
15. ㉠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갈대아의 침입을 당해도 아주 망하지는 않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 근거(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 이유는 거룩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에 멸망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만세 전부터 계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즉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달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든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잘 깨달아 알고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딤후 1:2).
16. ㉠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왜 '쾌활한 자들을 방관(傍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는가'하고 의문을 품은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 이유는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는 달리 악한 갈대아가 그들보다 성품이 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고통을 주는 데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참조, 고전 10:13).
17. ㉠ '바다의 어족(魚族)' 과 '주권자 없는 곤충' 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14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히는 것을 바다 고기와 곤충에 비유한 말이다.
-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딤후 2:26).
18. ㉠ '뉘시', '그물', '초망' 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15절)
- ㉠ (1) '뉘시', '그물', '초망' 은 갈대아의 군대를 비유하는 말이다.
- (2) 이처럼 하박국이 갈대아의 군대를 그물에 비유한 것은 고기잡는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쏘아 잡듯이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3) 하나님께서 이만큼 철저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인 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 (4) 사실 하나님은 죄악을 섬멸하시기 위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다(참조, 요일 4:10).
19. ㉠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나' 란 말이 가리키는 뜻은 무엇인가? (16절)
- ㉠ (1) 이 말은 갈대인들이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신하고 그것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가

리킨다.

- (2)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까닭은 자신들의 군비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 소득이 풍부하게 되고 식물이 풍성하여졌기 때문이었다.
- (3) 즉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비로 인해 물질과 재물이 풍족해지니까 그 군비를 자신들의 신(神)으로 삼은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소유가 풍족해질 때 그 소유물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롬 1:23).

20. ㉠ ‘그물을 떼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물을 떼고’ 라는 말은 그물에 딸려 올라온 고기를 걸러낸다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함을 가리킨다.
- (3)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와 같은 갈대아 사람들의 만행(蠻行)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처럼 그가 한탄한 것은 악인의 득세가 원통해서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도의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이때다(참조, 사 40:27).

### 화보자료

쿰란에서 발견된 「하박국 주해서」. 이것은 1947년 쿰란(Qumran) 동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하박국서의 주제인 ‘이신 득의’(以信得義) 사상(2:4)을 재천명(再闡明)하고 있는 책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명 ‘정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다. 그가 이러한 별칭을 얻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 던진 그의 몇 가지 물음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한 물음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12절-2:1).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궁극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는 것이었다.

## 제 2 장 심판받게 될 갈대아

단락구분 1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 2-3 하나님께서 주지시킴 말씀 / 4 악인과 의인의 대조(對照) / 5-8 침략자 갈대아의 만행과 열국의 반응 / 9-20 침략자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들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 그는 술을 즐기며 케홀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은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니라

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 너를 물 자들이 흘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피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에,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답에서 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 피로 음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와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17 대저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배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전장에서 하박국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준비를 선지자 하박국에 명하신 것과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언급하신 것 그리고 침략자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탐심과 잔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간과(看過)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잠 16:12).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看過)하지 않고 철저히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시 9:8).

2. **㉠** 하박국이 파수대(把守臺)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하박국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 (2) 그런데 하박국이 파수대에서 응답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후에 그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이 필요하다.

3. **㉠**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박국에게 명령하셨는가? (2절)

- ㉠** (1) 그 목사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板)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많은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보호하고 보존시키기 위함이었다.
- (3) 이와 같이 보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외국으로부터 보존 방법을 받아들여 기록한 판들을 땅 속에 묻어 보관하게 하셨다.

4. **㉠** 하박국이 하나님의 목시가 그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시하신 대로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한 후 인내를 가지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딤후 6:11).

5. **㉠**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 말은 교만한 자의 심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자란 갈대아 왕을 의미하며 또 그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이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비록 왕일지라도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대상 28:20).

6. **㉠**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였는가? (4절)

- ㉠** (1)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본래 의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당신의 선물이다(엡 2:8).
- (3)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의인이 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영원히 살게 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7. **㉠** 갈대아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제(自制)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넓혀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었다.

- (2)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언제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약 1:15).

8. **㉠ 갈대아 사람들이 열방으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모았기 때문이었다.
- (2) 이처럼 남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쌓게 되면 그 착취당한 자들의 미움도 함께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쌓은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 (3)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소유마저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쌓지 말아야 한다(삼하 12:10).

9. **㉠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열방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열방들을 노략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8절).
- (2) 이것은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우리도 불의하게 남을 해롭게 하면 보응을 받게 된다(마 26:52).

10. **㉠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말은 갈대아가 적국의 공격을 면하기 위해서 국력을 튼튼하게 했던 것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그들은 국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구실로 열방들로부터 불의한 착취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禍)가 있겠다고 선포하셨다.
- (3) 이와 같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화(禍)가 임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대하 25:19).

11. **㉠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민족을 멸한 결과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 결과는 그들의 집이 욕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 (2) 여기서 '집이 욕을 당한다는 것'은 갈대아인들이 멸한 민족에게 한 만큼 자신들이 보복당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잠 20:2).
- (3) 이것은 남을 해치는 죄는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엄한 경고를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해침으로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12. **㉠ '담에서 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이것은 갈대아인들이 못사람들의 피를 노략한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거지를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건축물에 사용된 무생물인 재료들이 갈대아인들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갈대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물에게까지 그 분노가 사무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참조, 창 4:10).
- (3)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당시 갈대아의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 죄를 아파하지 않을 때에 자연계의 여러 현상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경책하신다(참조, 창 3:18).

13. **㉠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12절)**

- ㉠** (1) 이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성을 건축하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백성의 피와 땀으로 성을 건축한 통치자는 침입한 갈대아의 왕 느부갓

네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을 말한다.

- (3) 여호야김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국가 기금을 들여 사치스런 왕궁을 지었다(렘 22:13, 14).
- (4) 이처럼 국민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쏟는 통치자는 결국에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다.

14. ㉠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困憊)하게 되는 것’이란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이것은 여호야김 왕을 위해 성을 쌓는 데 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여러 나라를 지배하느라고 들인 갈대아의 노력이 각각 허사로 끝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실제로 이 두 민족의 노력은 각각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지혜와 노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사 57:10; 렘 51:58).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는다(시 127:1).
- (4)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해나가야 한다.

15. ㉠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란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세상 끝 날에 모든 세상 열방이 여호와와의 위력과 위엄을 느끼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또한 이것은 허박국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민 23:21).
- (3) 즉 허박국은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 벌써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도래(到來)를 소원하고 있었다.

16. ㉠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15절)

- ㉠ (1)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갈대아 사람을 가리킨다.
- (2) 즉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침입했을 때 그곳의 여인들에게 강제로 술을 많이 먹이고 추행(醜行)을 했었다(나 3:5).
- (3)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백성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17. ㉠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이 말은 갈대아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수치를 당할 것을 가리킨다.
- (2) 원래 갈대아 민족의 성(城)인 바벨론은 약 25.9m 두께의 거대한 성곽으로 된 17.7km의 둘레를 가진 성이었다.
- (3) 그런데 이 견고한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성은 B.C. 539년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고 말았다(단 11:2).
- (4) 이처럼 인공적인 방어력이 아무리 우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의 방어막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시 127:1).

18. ㉠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殘害)한 것’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 ㉠ (1) 그것은 갈대아인들이 자신들의 무기와 건축을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들을 도벌하므로 짐승들이 안식처를 잃게 된 것을 가리킨다.
- (2) 실제로 갈대아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악하게 벌목하여 자신들의 대대적인 건축에 사용하였었다(사 14:8).

(3)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19. ㉠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이 말은 우상이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함을 가리킨다.  
 (2) 즉 우상은 무생물인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시 135:17)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범죄한 인간이 결과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최악된 상태이다(참조, 롬 2:21-25).  
 (4)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출 20:4).

20. ㉠ '은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갈대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있을 터이니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이다.  
 (2) 그런데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은 악인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의인에게는 커다란 기쁨의 설레임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게 하는 경종이 된다(눅 12:40).

## 연구자료

하박국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본서를 읽는 사람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물음의 내용이 평소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의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보다 더욱 번영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현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온갖 죄악과 사회적인 갖가지 패역 및 강포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서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내에 악이 계속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2-4). 또한 그는 유다보다도 바벨론이 더 악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징벌하는 데 바벨론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절; 1:12-17). 이 같은 의문은 성도들을 당혹케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문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셨다. 그것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4절)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비록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을 연단시키고 정화(淨化)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며,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하박국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제 3 장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단락구분 1-2 하박국의 기도 / 3-16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 17-19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을 선언하다

1 시기오눈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5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 주의 날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

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쁨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셀라)  
 14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흠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도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나라

### 1. ㉠ 본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서 하박국은 갈대아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뒤 그 심판 중에서도라도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다(2절).  
 (2)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한 후 다가올 갈대아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되어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선언한다(17-19절).  
 (3) 그런데 하박국이 갈대아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해져 자신의 소산물(所産物)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에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2. **Q** '시기오롯'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절)

- A** (1) '시기오롯'이란 히브리어로 (쉬그요노트)인데 이 말은 '열정적인 시가(詩歌)'를 뜻한다.  
 (2) 즉 이것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이다(시7편).  
 (3) 이를 통해 우리는 하박국이 강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본장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3. **Q** '부흥케 하옵소서'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A** (1) 이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 달라'고 구하는 말이다.  
 (2)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갈대아로 심판하시기로 선포한 그의 계획을 보 존 또는 수행해 달라는 서원이다(1:5-11).  
 (3)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였던 것이다.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4. **Q** '데만'과 '바란 산'은 각각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3절)

- A** (1) '데만'은 에돔의 주요 거주지들 중의 하나를 가리키며 '바란 산'은 에돔과 시내 산 사이의 산이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2) 그런데 하박국 선지가 '데만'과 '바란 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 때 70장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현현(顯現)하신 곳이 바로 '데만'과 '바란 산' 사이였기 때문이다(민 11:16).  
 (3) 즉 여기에서 하박국은 '데만'과 '바란 산' 사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갈대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묘사하였다.

5. **Q** '광선(光線)이 그 손에서 나오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A** (1)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란 말은 '광선이 손에서 비치니'란 뜻인데 손이 몸체의 옆에 있으므로 이 말은 광선이 그의 옆에 있다는 말이 된다.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현현하실 때는 그분의 양측에 찬란한 빛이 들리울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시 104:2).

6. **Q** '온역(瘟疫)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5절)

- A** (1) 여기서의 '온역'은 출애굽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출 9:15)을 뜻한다.  
 (2)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재앙을 말한 이유는 그가 예견했던 하나님의 심판도 대적들에게는 형벌이며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과 구원이라는 양면성(兩面性)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7. **Q** '땅이 진동하며'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A** (1) 여기서 '진동하며'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다드)로서 '측량하다'란 뜻이다. 그러므로 '땅이 진동하며'란 '땅을 측량한다'는 말이 된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바르게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행위와 죄를 측량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행위와 죄를 측량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욕 14:16).

8. **Q**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없어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서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2) 원래 땅이나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것들도 떨 수밖에 없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세상의 왕들도 꿈쩍 못하고 떨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피할 수 없이 적용된다(미 7:9).

9. **㉠** '구산의 장막(帳幕)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揮帳)이 흔들리도다'에서 '구산'과 '미디안'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1)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키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한 족속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사 웃니엘(삿 3:8-11)과 기드온(참조, 삿 6:2, 12; 7:25)에 의해 각각 진멸당하고 말았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 7:10; 시 118:7).

10. **㉠** '주께서 말을 타시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1) '주께서 말을 타시며'란 하나님의 위엄에 찬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2) 허박국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군대의 지휘관과 같은 분이심을 깨닫게 해준다.

(4) 그러므로 우리도 대장과 같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 만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수 1:9).

11. **㉠** '강을 노역위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와 요단 강을 가르셨던 것을 가리킨다(출 14:21-25; 수 3:14-17).

(2) 그런데 여기서 허박국이 과거의 그 이적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랑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갈대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12. **㉠** '살을 바로 발(發)하셨나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진노의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약되었다'란 뜻이다.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의미이다.

(3)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13. **㉠**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顯現) 앞에서 파도가 높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여기서 '바다의 파도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파도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즉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자연도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8:25).

14. **㉠**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와 달이 정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해가 멈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절하기 위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일어났었다(수 10:12, 13).

(3) 이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까지 복종시키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다(창 1:16).

(4) 우리는 이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된다.

15. ㉠ 하나님께서 노(怒)를 발하시어 하신 일은 무엇인가? (12절)

㉠ (1) 그것은 '땅을 돌리신 일'과 '열국을 밟으신 일'이다.

(2) 그런데 여기서 '땅을 돌리셨다'는 것과 '열국을 밟으셨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수 10:42).

(3)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자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존재하신 죽은 신(神)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16. ㉠ 하나님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13절)

㉠ (1) 그것은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 일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집머리'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지도자인 '가나안의 왕들'을 의미하며,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는 말은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3)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을 가리키고 있다(시 68:21; 110:6).

17. ㉠ '주께서 그들의 전사(戰士)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창으로 찢러 스스로 자멸하게 하셨던 일을 가리킨다(삼상 14:20; 대하 20:23, 24).

(2)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약한 나라들을 몰래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과 약한 자를 몰래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욥 24:14; 잠 17:5; 사 49:25; 렘 51:1; 나 1:2).

18. ㉠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란 뜻은 무엇인가? (15절)

㉠ (1) 그것은 '주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나이다'라는 뜻이다.

(2)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신비스럽게 건너간 사실을 가리킨다(출 14:21-29).

19. ㉠ '창자가 흔들렸고' 또 '입술이 떨렸다'란 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1) 이것들은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2) 그런데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3)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18절).

20. ㉠ 하박국이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1)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

(2) 즉 환난으로 인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다.

(3) 이것은 생활고(生活苦)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후 7:4).

21. ㉠ 하박국의 밤이 '사슴의 발과 같게 되었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1)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갖게 된 것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3)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환난을 이

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야 하겠다(사 40:29-31).

22. ㉠ ‘이 노래는 영장(伶長)을 위하여 수금(豎琴)에 맞춘 것이니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 말은 ‘이 노래는 성전 음악 지휘자가 받아 수금으로 찬양할 노래’라는 의미이다.  
 (2) 그런데 하박국이 이 노래를 수금으로 찬양하도록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3)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레위인들 뿐 아니라 성경에 감동된 왕들이 성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었다(사 38:20).

**화보자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光線). 17세기경 헬라이어 성경 필사본에 제시된 이 삽화는 본장 4절 말씀을 제재(題材)로 한 것이다.



하박국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4절)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햇빛 같은 광명이 하나님의 측면에까지도 돌리워 있다는 의미이지 여자적(如字的)인 의미는 아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는 광채와 관련지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본절 외에도 겔 1:13, 27:8;2;단 10:6 등이 있다.